

현공림의 『日鮮雜歌』 연구-문화의 번역과 전이*

노 혜 경**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공림의 이중언어 저술 『일선잡가 부 재담(日鮮雜歌附才談)』(이하 『일선잡가』)의 특질을 연구하고 그 문화사적 의미를 논의한 것이다. 『일선잡가』에는 일본의 와카 등 시가뿐만 아니라 산문 재담 역시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일선잡가』의 구성법은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잡가집의 구성법을 참고한 것이다. 이러한 『일선잡가』의 구성 방식의 가장 큰 목적과 효용성은 대중성을 높이는 일에 있었다. 『일선잡가』는 수록된 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표기 양상을 보여주는데, 본문 서두의 와카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일본어와 조선어를 병기한 이중언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일선잡가』는 조선어 번역문 표기에서 ‘직역’과 ‘의역’으로 나눈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일본어문을 이처럼 ‘직역’과 ‘의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것은 여기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사례이다. 『일선잡가』의 이중언어 표기 방식은 그가 과거에 시도하던 사례들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일선잡가』의 다양한 표기 형태는 이중언어 표기 방식이 시대적 흐름 및 독자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일선잡가』에 실린 와카는 내용 면에서 보면 봄과 여름 등 계절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소재의 공통성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 작품의 내용이 이른바 일본의 정신을 표현하거나 천황의 치세를 칭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와카뿐만 아니라 기타 잡가 및 나니와부시 등 여타 장르의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공림은 일본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 작품의 내용을 미묘하게 변화시키기도 했다. 『일선잡가』는 식민지 시기 문화의 번역과 전이 현상 및 그에 따른 저술가의 방법론적 고뇌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주제어] 현공림, 『일선잡가』, 이중언어 표기, 번역, 와카, 나니와부시, 라쿠고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마무리 |
| II. 『일선잡가』의 특질 연구 |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1340)

** 연세대학교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부교수 / nhkyoung@yonsei.ac.kr

I.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 초기의 대표적 저술가 겸 번역가였던 현공림의 이중언어 저술 『일선잡가』의 특질을 연구하고 그 문화사적 의미를 논의하는 데 있다.¹⁾ 현공림은 근대 초기 이중언어 저술 연구에 가장 적합한 저술인이다. 근대 초기 현공림은 누구보다 지속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중언어 저술을 시도하였다. 현공림은 한일병기체의 이중언어 표기, 이른바 일선어(日鮮語) 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저작물들을 저술·편집·출판하였다. 그의 일선어 저술 활동의 범주는 일본어 교재 『정선 일어통편』(1911)이나 법령 같은 실용문에서부터 『일선어 신소설 동각한매』(1911), 『일선어 신소설 죽서루』(1911)와 같은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일선잡가』는 현공림이 출간한 잡가집으로 1924년 대창서원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일선잡가』는 근대 초기 이중언어 저술을 통한 문화의 번역과 전이 과정을 확인하기에 매우 유용한 텍스트이다. 그런데도 식민지 시기에 발간된 여타 잡가집과는 달리 이 저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일선잡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한 잡가집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저술이다. 이 책에는 와가(和歌) 등의 운문뿐만 아니라 재담 등 다양한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와가를 번역하고 이중언어로 표기하는 데 현공림은 기존에 저술 간행했던 문법서나 소설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매우 새롭고 독특한 번역 및 표기 방식을 사용한다. 『일선잡가』가 지닌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책의 구성 방식과 번역 방식 및 표기 형태, 그리고 이 저술이 다루는 내용들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일선잡가』 번역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저자가 일본어 작품을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부분적으로 그것이 원문의 ‘직역’인지 혹은 ‘의역’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역과 의역의 번역 현상을 정리하고 이들의 구분 원리에 대해서도 고찰할 예정이다. 『일선잡가』 속에 라쿠고(落語)와 나니와부시(浪花節) 같이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대중적인 예능으로 인기가 있던 연행물이 소개된 점도 흥미롭다. 이들 작품이 번역되고 이중언어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 굴절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일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이중언어 표기를 활용한 외래문화가 전이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1) 현공림(1876~1932)은 대대로 역관을 지낸 천녕(川寧) 현씨(玄氏)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교육자이자 저술가로 명망 높았던 현재이다. 현공림은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일어부를 졸업한 후 일본 규슈의 사립학원 제재학당(私立學院濟濟學堂)에 유학했다. 귀국 후에는 독립협회, 광무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만민공동회를 주관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수륜원(水輪院) 공상과(公桑課)에 주사로 근무하였고, 1905년에는 양잠서를 번역 출간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인 대창서원을 기반으로 왕성한 출판 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야노 류케(矢野龍溪)의 정치소설 『경국미담(經國美談)』의 번역과 『일선어 신소설 동각한매』, 『일선어 신소설 죽서루』 등이 있다.

II. 『일선잡가』의 특질 연구

1. 운문과 산문의 혼재

『일선잡가』는 당시에 유행하던 여타 잡가집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히 잡가 등 시가만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산문을 함께 수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선잡가』에는 와카 등 일본의 시가와 함께 산문 재담이 섞이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알리듯 『일선잡가』의 표제가 앞표지에는 ‘日鮮雜歌 附才談’으로 표기되어 있고, 목차에는 ‘日鮮 雜歌 附才談’으로 되어 있다. 한편 쪽 표제는 ‘日鮮歌謠及才談’이고, 판권장에는 ‘日鮮雜歌及才談上卷’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지면에 따라 표제 및 글자 크기가 각기 상이한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들 표제를 통해 이 책이 운문 못지않게 재담에도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렇게 가집 중간에 재담 류 산문이 실려 있는 것은,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교가집(狂歌集)이나 청일전쟁, 러일전쟁기에 양산된 군가, 패러디 노래를 모은 속가집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구성법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²⁾ 따라서 현공림이 이 책을 편집 저술하면서,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법 또한 일본의 그것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법은 일본이나 조선의 경우 모두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약한 시가와 함께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산문 재담을 나란히 배열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지속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일선잡가』는 운문 3~7수가 수록되고 다음에 산문이 1~2편씩 들어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문은 와카와 교카(狂歌, 와카의 형식을 빌려서 기지나 골계를 읊은 시)로 나눌 수 있는데 와카가 42수, 교카가 9수이다. 산문은 와카 관련 글, 돈치바나시(頓智話)와 같은 소화(笑話), 라쿠고, 나니와부시, 실용문 등이다. 산문의 주를 이루는 것은 돈치바나시이다. 돈치바나시는 『일선잡가』에 ‘突發智’(10),³⁾ “臨時突發 是智慧의 이야기”(19)라고 번역되어 있듯이 ‘재치담’의 일종이다. 『일선잡가』에 수록된 돈치바나시는 잇큐(一休, 宗純)와 상이나 소로리 신자에몬(曾呂利新左衛門), 니나가와 신자에몬(蜷川新左衛門)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일본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다. 『일선잡가』에 수록된 돈치바나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일련번호	제목	주요 등장인물
1	一文倍増し/한푼이빅됨	曾呂利新左衛門
2	頓智話(鏡餅)	宗純(一休)
3	頓智話シ(無筆の犬/無識犬)	

2) 그러한 사례로는 国民文庫刊行会 編, 『狂歌狂文集』, 東京: 国民文庫刊行会, 1912; 夢廼家主人, 『戲芸一大奇書: 戦争詠込』, 東京: 早川熊治郎, 1895; 松の家みさを, 『日清滑稽流行歌大博覧会』, 東京: 石橋南門堂, 1895 등을 들 수 있다.

3) 『일선잡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쪽수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인용문의 띄어쓰기는 원문을 따르고, 일본어문의 후리가나는 논의 상 필요한 부분에만 붙였다.

일련번호	제목	주요 등장인물
4	曾呂利新左衛門ノ旅行中ノ話シ/ 중려리신좌위문의려행중화	曾呂利新左衛門 *狂歌 3수
5	盜難	曾呂利 *狂歌 1수
6	肖柏ノ牛糞ヒ/초박이소를어듬이라	* 狂歌 1수
7	頓智話(橋、端、箸ヲ皆はシト呼ブ/ 교단저세글스즈를모다(はし)라부름)	一休
8	一休禪師ト蜷川ノ地獄問答	一休, 蜷川新左衛門
9	引導/천도식한다	一休
10	地獄問答	蜷川新左衛門
11	地獄問答(三)	一休, 蜷川新左衛門
12	溢レル、頓智二、師匠モ、舌ヲ捲ク/ 넘치는, 립시쳐변에, 스승도, 혀를너두루다	一休
13	頓智話シ(魚ニ引導)	一休
14	頓智話シ、嬢ハ公ノ娘	一休

잇큐는 무로마치 시대의 임제종(臨濟宗) 승려로 돈지(頓智)와 기행(奇行)으로 유명해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소로리 신자에몬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토기슈(御伽衆, 무로마치기 이후 주군의 이야기 상대를 맡았던 직제)로 알려지는 인물인데, 기지가 있고 화술이 뛰어났으며 교카도 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로리가 등장하는 이야기에는 대개 교카가 삽입되어 있다.⁴⁾

『일선잡가』에는 돈치바나시 외에도 라쿠고를 번역한「일선골계화(日鮮滑稽話)」가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제목이 ‘^{ぼうず もんだふ}僧主問答/승의답문’으로 되어 있다. 이 「일선골계화」는 현공림이 1915년에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을, 『일선잡가』에 기존 단행본의 내용 그대로 재수록한 것이다. ^{ぼうず もんだふ}‘僧主問答/승의답문’의 원작은 고전 라쿠고 「곤약문답(蒟蒻問答)」이다.⁵⁾ 얼떨결에 주지승 행세를 하게 된 곤약장사 로쿠베는 나그네 선승과 선문답을 나누게 되는데, 로쿠베는 선승의 질문을 곤약에 대한 물음으로 착각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고, 한편 선승은 로쿠베의 대답을 심오한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해한다는 내용이다. 상대에 대한 착각과 서로의 어긋남이 웃음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주요 등장인물이 승려인 점, 등장인물 간의 문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사 진행 방식, 결말에 웃음을 이끌어내는 서사 구조는 『일선잡가』에 실려 있는 ‘地獄問答’ 등의 돈치바나시와 유사하다. 현공림도 이러한 유사성에 착안하여 「일선골계화」를 『일선잡가』에 재담의 하나로 재수록한 것으로 보

4) 소로리는 수많은 일화를 남겼으며 에도시대에는 『曾呂利狂歌咄』와 같은 책이 엮이기도 했다.

5) 『일선골계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혜경, 「『일선골계화(日鮮滑稽話)』 연구: 원전의 발굴 소개와 변용(變容)의 의미 탐구」, 『동양학』 6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59~75쪽 참조.

인다. 돈치바나시와 라쿠고는 웃음의 요소를 지닌 문예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렇게 운문 사이에 재담을 배치한 『일선잡가』의 구성은, 이 책이 와카 구조에 대한 해설과 감상을 두루 갖춘 본격적인 와카 입문서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 중간에 우스운 내용의 돈치바나시와 라쿠고를 삽입함으로써, 차칫 딱딱한 내용에 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이중어 표기

『일선잡가』에는 와카, 라쿠고, 나니와부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이 실려 있는데, 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표기 양상을 보여준다. 『일선잡가』의 본문은 첫머리의 와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일부 글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일선어, 즉 일본어와 조선어를 병기한 이중언어로 표기되어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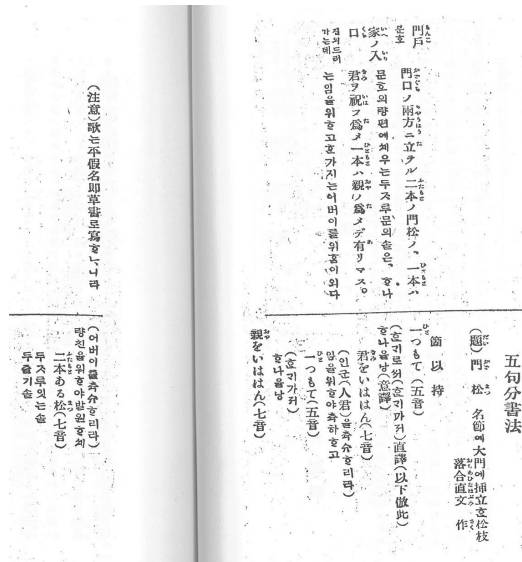
『일선잡가』의 본문 첫머리에는 약 한 페이지 분량의 「和歌(ウタ)」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와카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책의 성격과 편찬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和歌(ウタ)」의 서두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和歌(ウタ)
 和歌는日本歌라 함 이니和와大和는日本の古, 國名이라故로此歌를大和歌或大和詞라도 和歌를評함을
 歌合이라 하며 三十一音으로歌一首를作하고一首를 五句に分하고一句를五音, 七音兩種에區別하여, 五,
 七, 五, 七, 七, 合五句三十一音(字)이되게 하고又阿行이末句에入 할時는三十二字될時到有 하며又初三句
 十七音を上句라 하고末二句를下句라 하고歌를作 할時의排字法은五句를五行に分書하기도 하고

이 글에서는 와카의 의미, 자수 등 와카의 기본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첫머리 부분은 『일선잡가』에서 유일하게 국한문혼용의 조선어로만 쓰여 있다. 다만, 제목 ‘和歌(ウタ)’를 비롯하여 ‘大和詞’, ‘歌合’, ‘腰折’ 등 군데군데 와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에는 히라가나로 후리가나가 달려 있다. 한자 지식이 있으면 용어의 대략적인 의미는 짐작할 수도 있으나, 일본어 발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일본어를 읽지 못하는 독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표기 방식을 취한 것이다. 1910년대의 일선어 저작이 초보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육에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선잡가』는 어느 정도 일본어 능력을 갖춘 독자를 상정하고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6) 『일선잡가』에서 이중언어로 표기하지 않은 글은 「米商用諺解/쌀장수의쓰는말푸리」와 「花(笑)」 이하 글 네편이다.

「和歌(ウタ)」 이하의 본문은 기본적으로는 한 문장을 조선어와 일본어를 병기한 이중언어 표기를 사용하였다. 와카를 상하 2단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풀이해 놓았다. 하단에는 와카 원문을 인용하고 조선어 번역을 대응되게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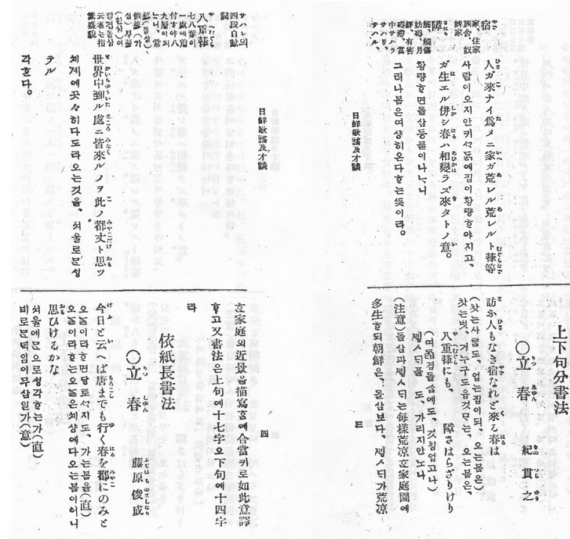
〈그림 1〉

위 인용문 하단 “^{ひと}一つもて”라는 일본어문의 오른쪽에는 “箇以持”라고 한자를 붙여놓았다(〈그림 1〉). 이렇게 보조 문자로 한자를 붙여놓은 이유는 한자를 읽을 수 있는 독자가 일본어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본문 곳곳에는 ‘注意’라 하여 보충 설명을 덧붙였는데, “歌는平假名即草書로寫^히는니라”(3), “暖國故題鷺於此時”(33)와 같이 국한문 혹은 한문으로 표기하였다. 상단의 본문 위 여백에는 “^{こがらし}木枯 樹木을 枯凋케 하는秋冬疾風이니 風字는木風の合字”(27)와 같이 두주(頭註)를 달았는데, 이 또한 국한문 혼용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자와 한문 식자능력이 있는 지식인 독자를 대상으로 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주석란에는 “^{かどぐち}門口’에 대해 “^{もんこ}門戶 文호 ^{いへ}家ノ入口 집의드러가는 데”(2)라는 식으로 주로 일본어 단어의 뜻을 풀이해 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さはり}障’에 대해 “サハラ、サハリ、サハル、サハレ의 四段自動詞”와 같이 문법적인 설명을 덧붙인 예도 있다. 이러한 표기나 주석 방식은 이 책이 일본어 교육의 목적 또한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 상단은 하단에 기재한 와카의 취의(趣意)나 통석(通釋)을 서술한 것이다. 〈그림 1〉에 제시한 와카 제1수 제1구에 해당하는 상단은 “^{かどぐち}門口ノ^{りやうほう}兩方ニ^た立^{ふたもと}テ^{ひともと}二本ノ門松ノ、一本ハ/문호의랑편에세우는두즈루문의

솔은, ㅎ나는”인데, 일본어문은 한자 가타카나 혼용문이고 한자에는 히라가나로 후리가나를 달았다. 본문 상단과 하단의 일본어문 표기가 다른 것은 와카가 대개 한자 히라가나 혼용문으로 쓰인 것과 관련이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歌는平假名即草書로寫 ㅎㄴ니라”라는 ‘注意’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하단에는 와카 원문을 한자 히라가나 혼용문으로 표기하고 상단에는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한자 가타카나 혼용문으로 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단의 조선어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직역’과 ‘의역’으로 나눈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는 점이다. 저자가 하나의 일본어문을 이처럼 직접 ‘직역’과 ‘의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것은 『일선잡가』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근대 초기는 번역이 활성화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번역자들에게도 자신이 수행하는 문장의 번역이 직역인가 혹은 의역인가에 대한 구분 의식은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자가 직접 ‘직역’, ‘의역’이라고 명기해 놓은 것은 번역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이다. 운문 작품의 번역 과정에서 이러한 시도를 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일선잡가』는 번역사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래 인용은 『일선잡가』에 수록된 와카들이다.



〈그림 2〉

위 〈그림 2〉의 첫수는 기노 쓰라유키(紀貫之)의 와카인데 ‘立春’이라는 가제(歌題)가 붙어있다. 먼저 직역을 배치하고 다음 줄에 의역을 배치했다. 이어지는 “(注意)돌삼과쟁스디는每樣荒涼 ㅎ家庭園에多生 ㅎ되朝鮮은, 돌삼보다, 썩스디가荒涼 ㅎ家庭의近景을描寫 ㅎ에舍當기로如此意譯 ㅎ고又書法은上句에十七字下句에十四字라”에는 현공림의 번역 방법에 관한 생각이 드러나 있어서 흥미롭다. 이 ‘注意’는 황량한 폐허의 표상으로 사용되는 ‘八重葎’을 직역과 의역에서 다르게 번역한 저자의 의도를 설명한 것이다. 직역은 ‘여덟겹돌삼’

이라 하고, 의역은 ‘쌍스딴풀’이라고 했는데, ‘쌍스딴’을 택한 이유를 조선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하는 데 합당하여 이렇게 의역했다고 설명한다. ‘쌍스딴’은 뺑대썩을 가리키는데 조선에서 폐허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현공림의 직역과 의역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이다. ‘八重葎^{やへむぐら}’를 직역에서는 원 단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여덟겹돌숨’으로 번역한 데 비해, 의역에서는 ‘注意’에서 밝혔듯이 조선의 풍토, 문화 전통 등을 고려하여 번역어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와카와 같은 운문의 번역에서도 현지화(現地化)의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현지화의 사례는 『일선잡가』의 산문 번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니와부시에서 일본인 이름을 조선식 이름으로 바꾸어 놓는다든지 라쿠고에서 지명을 조선의 지명으로 바꾸는 것도 같은 방식의 번역이다. 현공림은 자신의 번역 행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자신이 번역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意譯’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번역에 대한 번역가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어의 선택과 더불어 직역과 의역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助詞)의 번역 방식이다. 직역에서는 조사를 사전적 의미 그대로 번역했다. 의역에서는 조사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바꾸어 번역했다. 위에 인용한 〈그림 2〉의 “今日と云へば”는 『신고킨와카슈(新古今和歌集)』(1卷・春歌上5)에 수록된 후지와라노 도시나리(藤原俊成, 후지와라노 순제)의 와카이다. 직역 부분을 살펴보면,

今日と云へば/오늘이라하면, 唐までも/당토스지도, 行く春を/가는 봄을
都にのみと/서울에만으로, 思ひけるかな/싱각하는가

와 같이 다섯 구로 이루어진 와카의 구에 맞추어서 번역문을 대응시키고, 조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비해 의역 “오늘이라하면오늘은세상에다오는봄이여니 네로몬넉임이무삼일가”는 원가의 구나 단어, 음절에 맞추어서 번역하지 않았고 원가의 조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의역은 기점텍스트의 표현이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대의(大意)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일선잡가』에서 현공림이 시도한 이중언어 표기를 사용한 시도는 다양한 번역 방법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한편, 『일선잡가』에 수록된 산문의 본문 구성은 먼저 일본어문을 배열하고 일본어문 원문에 조선어문을 배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본어문의 표기 방식은 “商人體ノ人紫野大徳寺へ來テ”(10, 「鏡餅^{かみもち}」)와 같은 한자 가타카나 혼용도 있고, “オイ何か面白い話しは無いか”(19, 「無筆^{むひつ}の犬^{いぬ}」)와 같은 한자 히라가나 혼용도 있어서 일정치 않다. 한자 오른쪽(본 논문에서는 한자 위)에는 히라가나로 후리가나를 달아놓았다. 조선어문은 순한글로 되어 있다. 현공림이 1910년대에 출간한 『일어통편』과 같은 일본어 학습용 일선어 저작에서는 어

절 단위로 일본어문과 조선어문을 대응시켜서 두 언어를 비교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하면 『일선잡가』의 이중언어 표기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두 책의 성격이 다른 점에 서 비롯된 것이다. 『일어통편』은 초보 일본어 학습자와 상급 일본어 학습자를 두루 시야에 넣은 전문적인 일본어 학습서이다. 반면에 『일선잡가』는 와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일본어 능력을 갖춘 독자를 대상으로 상정한 것이고 읽을거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책의 성격 차이가 표기 방식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담의 본문 위 상단의 두주는 ‘頭陀’^{つだ}와 같이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修治, 修行, 行乞僧”(94)과 같이 풀이해 놓은 사례가 주를 이룬다. 『일선잡가』에 실린 재담이 절에서 이루어지는 문답 형식을 취한 것이 많아서인지, 주석란의 단어도 ‘行脚’^{あんぎゃ}과 같은 불교 관련 용어가 많다. 주석의 대부분은 ‘如意’^{にょい}의 의미를 “玉, 鐵, 骨, 角竹, 木等으로作호는長이尺餘되는杖이니端이捲曲호는기篆字의心字와如호는야心の表跡이라호고又曰手의難到호는背痒을搔호는기人意와如호는다云々”(83)과 같이 한자를 많이 섞은 국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책의 독자를 어느 정도 한자 소양을 갖춘 지식층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와카와 나니와부시

와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번역, 소개되는 것은 1940년대 이후이다.⁷⁾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일선잡가』는 근대 시기 가장 이른 시점에 국내에서 발간된 와카집인 셈이다. 『일선잡가』에 수록된 운문은 전통적인 와카와 교카, 메이지기에 창작된 근대 단카(短歌)를 포함한다. 와카의 작자로는 나라 초기의 아마베노 아카히토(山部赤人)를 비롯하여 에도 후기의 가가와 가게키(香川景樹), 근대 시기의 오치아이 나오후미(落合直文),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오노에 사이슈(尾上柴舟)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노 쓰라우키(紀貫之),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 후지와라노 나가요시(藤原長能, 후지와라노 나가토), 가가와 가게키, 마사오카 시키, 오치아이 나오후미가 두 수씩 싣고, 아마베노 아카히토, 후지와라노 데이카(藤原定家) 등 24명의 가인이 한 수씩 싣었다. 그 밖에 작자 미상의 요미비토시라즈(詠人知らず) 우타가 여섯 수이다.

『일선잡가』에 수록된 와카는 봄과 여름 즉 계절과 관련된 노래들이다. 여기에 가을과 겨울의 노래가 실리지 않은 것은, 상권에는 여름과 관련된 노래들까지 싣고 하권에 나머지 계절에 관한 노래를 싣기로 기획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⁸⁾

『일선잡가』의 첫머리에는 「和歌(ウタ)」라는 제목의 와카에 대한 설명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는 “和歌는 日本歌라 함이니和와大和는日本の古, 國名이라故로此歌를大和歌或大和詞라도 호고”(1)라는 와카의 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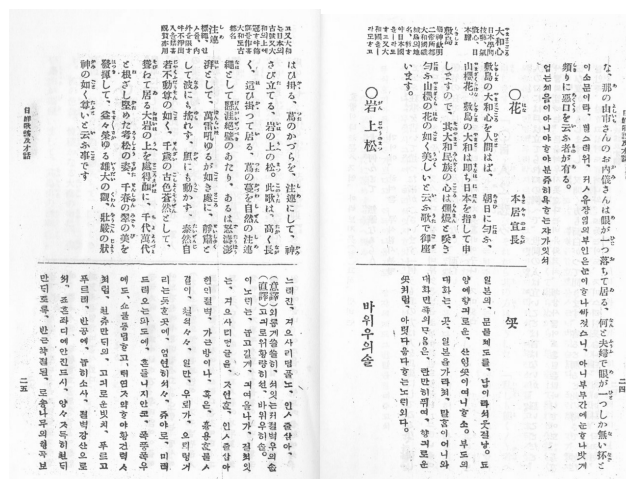
7)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상현, 「한국에서의 와카 번역사 연구: 자국화와 타국화의 사이」, 『일본문화연구』 57, 2016, 43~63쪽 참조.

8) 『일선잡가』의 목차와 판권장에 ‘일선잡가금재답상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획 당시에는 상하권으로 나누어 발간할 예정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권’뿐이고 ‘하권’의 출간 여부는 알 수 없다.

(語義) 및 자수(字數), 구성법 등 와카에 대한 기본 사항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此詠法은心身を安閑히 하고胸中에一點邪氣를不留하야 所見, 所聞, 所思를心에運會하야感情을吐露하되不飾不訛함이爲最又其文字는古하고志趣는新하야長江大河의轟轟의聲과如히(중략)初에五, 七, 五句⁷지는一心精力이 躍動하다가七七句에至하야解弛^{こしをれ}하면腰折이라하야惡評이有하니라”(1)와 같이 와카의 본질과 효용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이 글 다음에는 ‘五句分書法’, ‘上下句分書法’, ‘依紙長書法’, ‘短冊及畫題寫法’과 같은 표제 하에 와카의 서법(書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와카는 설명 남녀 간의 증답가라 할지라도 구두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드물고, 종이에 서사(書寫)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⁹⁾ 이 책에서 말하는 서법이란 와카 쓰기 방식, 서식(書式)을 지칭한다. 근대 시기 일본에서 발행된 와카 입문서에 대개 와카 서식이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선잡가』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일선잡가』는 입문서인 동시에 실용서의 기능도 갖추었는데, 책의 내용 중 ‘短冊及畫題寫法(단책급화제사법)’에는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다. 단책(短冊)은 와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종이를 뜻한다. ‘短冊及畫題寫法’은 단책이나 그림에 와카를 옮겨 적는 용도를 의도한 것이다. 동시에 위 표제들은 와카의 구절 수에 대한 안내이기도 하고, 와카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五句分書法’의 사례로 인용한 제1수는 새해를 상징하는 ‘가도마쓰(門松)^{かどまつ}’이다. 이어서 ‘立春’, ‘焼野蕨’, ‘躑躅’, ‘立春天’, ‘初春山’, ‘早春山’, ‘更衣’, ‘董’, ‘暮春’, ‘残春’, ‘三月盡’, ‘初夏’와 같은 식으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가제(歌題)를 붙이고 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배열했다. 이렇게 계절을 테마로 해서 와카를 분류하고 배열한 것은 최초의 칙찬(勅撰) 와카집인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이래 계승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 것이다.¹⁰⁾



〈그림 3〉

9) 海野圭介, 「和歌の詠まれる場とかたち」, 『タイ国 日本研究国際シンポジウム2007報告書』, 2007.8.2, 93쪽.

10) 鈴木宏子, 『「古今和歌集」の創造力』, NHK出版, 2018, 63~67쪽.

『일선잡가』에 실린 글 중에는 표기, 구성, 서술 방식이 이색적인 것들이 있다. 「花/笑」을 필두로 이어지는 「^{がんじやうのまつ}岩上松/바위우의솔」, 「^{しんねん やま}新年ノ山」, 「^{かいじやう かすみ}海上ノ霞/히상의아즈랑이」등 네 편의 글이 그것이다(〈그림 3〉). 이 글들은 서두에 와카를 인용하고 그 뒤에 해설을 덧붙인 공통된 형식을 취한다. 이 글들에 인용된 와카는 모두 봄과 관련된 경물(景物)을 읊은 것이다. 「花/笑」을 제외한 나머지 세 수의 작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와카를 인용한 방식이다. 서두의 와카 다음에 간격을 두거나 줄을 바꾸지 않고 바로 산문이 이어져 와카와 산문이 융합한 것과 같은 형상이다. 이는 『일선잡가』에 수록된 다른 와카들의 인용 방식과 비교하면 현격히 차이가 난다. 책 전반부에서 ‘五句分書法’, ‘上下句分書法’ 등의 표제 하에 와카를 설명한 부분은 와카의 형식적인 면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花/笑」 이하 네 편의 글에 삽입된 와카들은, 그 형식보다는 산문의 일부로서 내용 전달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일선잡가』의 여타 와카들과 다른 표기 방식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 글 네 편은, 현공림이 기존의 일선어 저작에서 시도했던 일선어 표기 방식, 즉 하나의 문장을 일본어문과 조선어문으로 병기하는 방식과는 달리 상단에는 일본어문, 하단에는 조선어문으로 구분하여 실었다. 현공림이 통상적으로 일선어 저작에서 사용하던 표기 방식과 비교하면 이는 일선어로 분류하기 어렵다. 그러나 글의 가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선어와 일본어를 병기한 문체보다 훨씬 수월하게 읽히고 내용을 파악하기도 쉽다. 와카의 형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둔 『일선잡가』의 다른 와카와 비교하면, 「花/笑」 이하 네 편의 표기 방식의 목적이 삽입된 와카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음은 분명하다. 문체도 『일선잡가』의 다른 글들과는 달리 “~美しいと云ふ歌で御座います/아릿다움다흐는노리외다”와 같이 독자를 의식하고 말을 거는 듯한 구어체를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현공림이 이 글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花/笑」에 삽입된 「^{しきしま やまと ごころ ひと と}敷島の大和心を人間はば」의 작자는 에도시대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이다. 이 와카는 1790년 회갑을 맞이한 노리나가 자신의 자화상에 곁들인 노래이다. 이 와카는 통상 ‘시마의 노래(敷島の歌)’로 불리는데 일본 정신을 표현한 노래로 알려져 있다. 『일선잡가』에서는 「花/笑」에 대해 “敷島の大和は即ち日本を指して申しますので、其大和民族の心は爛漫と咲き匂ふ山桜の花の美しいと云ふ歌で御座います/부도의대화는, 꽃, 일본을가라쳐, 말흠이어나와대화민족의 마음은,爛만히휘여, 향기로운꽃처럼, 아릿다움다흐는노리외다”(24)라고 해설한다. 편자 현공림도 이 와카를 일본 민족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우타는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러일전쟁 중 세수(稅收) 증대를 노린 일본 정부가 담배 전매를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발매된 담배들의 상표인 ‘敷島’, ‘大和’, ‘朝日’, ‘山桜’은 노리나가의 와카「花/笑」에서 따온 표현이다.¹¹⁾

11) 日本たばこ産業株式会社, 「専売制の背景」, <https://www.tabashio.jp/collection/tobacco/t21/index.html>(검색일 : 2022.4.20).

「花^{はな}/笑^え」다음에 수록된 「岩上松^{がんじやうのまつ}/바위우의솔」에는 인용한 와카 “は^かひ^{つた}掛^る、鶯^うのか^{しめ}づ^{かみ}ら^を、注^{しめ}連^{かみ}にして、神^{かみ}さ^{かみ}び^{かみ}立^{かみ}て^{かみ}る、岩^{いは}の^{うへ}上^{まつ}の^{まつ}松^{まつ}”(25)의 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일본 정부의 『관보』 기사에서 작자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904년 1월 21일 자 『관보』 『宮廷錄事』란에서는 전날에 열린 가어회시(歌御會始, 우타고카이하지메)의 모습을 전한다. 가어회시는 매년 1월에 천황, 황후가 임석한 가운데 국민이 헌상한 이른바 ‘영진가(詠進歌)’ 중 우수한 것을 골라 낭송하는 일본 왕실의 신년 의식이다. 1904년의 칙제(勅題)가 ‘巖上松’이다. 「岩上松^{がんじやうのまつ}」에 삽입된 와카 “は^かひ^{つた}掛^る、鶯^うのか^{しめ}づ^{かみ}ら^を”는 가어회시 입선작으로 『관보』에 천황 어제(御製) 및 다른 입선작들과 함께 실렸다.¹²⁾ 기사에 따르면 작자는 ‘臺灣總督府鐵道部書記竹下種長(대만총독부 철도부 서기 다케시타 다네나가)’이다. 『관보』에는 이 해의 영진가가 17,575수라는 것과 투고자의 거주지별 분포 현황 등이 실려 있다. 투고자의 거주지는 일본 외에 대만, 조선, 미국, 청국을 포함한다. 『입선잡가』에서 현공령은 와카 “は^かひ^{つた}掛^る、鶯^うのか^{しめ}づ^{かみ}ら^を”를 “(의역)외롭게쓸쓸히, 서있는저절벽우의솔/(직역)고기로위 황량히선, 바위우히솔”(25~26)이라 번역하고, “무성하고옹위장엄함이신인과긔치존엄하다함이외다”라며 노송을 예찬한 노래라고 해설한다. 일본의 문화 전통 속에서 상록수인 솔은 “계절을 초월하는 나무로 ‘護符’적인 기능”을 지니며 “神이 강림하는 장소인 ‘요리시로(依代)’”이기도 했다.¹³⁾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솔을 “신인과긔치존엄하다”고 표현한 현공령의 해설에 따르면 「岩上松^{がんじやうのまつ}」에서 노래한 솔 역시 솔이 지닌 전통적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와카가 가어회시에 헌상한 것임을 생각하면, 불변을 상징하는 노송에 빗대어 천황의 치세가 영원하기를 축원하는 노래임은 자명하다.

「岩上松^{がんじやうのまつ}」다음에 수록된 「新年^{しんねん}ノ山^{やま}」의 삽입 와카 “皇軍^{みいくさ}に召^めし出^だされし我^{わが}背^せ子^こは、何^{いづく}處^{やま}の山^{としむか}に年^{とし}迎^{むか}ふらん/군국스에, 쫓피여나야간, 우리임이이즘에어느강산에식히마질스고”(26)는 1905년의 가어회시에 헌상한 영진가이다. 이 해의 칙제는 ‘新年山’이다. 현공령은 이 우타를 “독수공방지늑는, 군인의명조잇는녀인의그적막 혼심스가, 연연쥬, 이노리에나타나, 만이원정흔, 지이비를상스흔정이(중략)즈연히가숨에가득흔명창이올 시다”(27)라고 격찬한다. 1905년 1월 20일 자 『관보』(6465호)에는 이 우타의 작자를 ‘山梨県平民陸軍歩兵二等卒大須賀昌二妻まつ江(아마나시 현 평민 육군 보병 이등졸 오오스가 쇼지의 처 마쓰에)’라고 밝혔다. 러일전쟁이라는 전쟁 시국에, 참전한 일개 병사의 아내가 남편을 그리며 걱정하는 우타를 가어회시에 헌상하여 입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海上^{かいじやう}ノ霞^{かすみ}/희양의아즈랑이」의 와카 “島^{しま}山^{やま}の、松^{まつ}に夕^{ゆう}日^ひの、影^{かげ}落^おちて、霞^{かすみ}にくるる、波^{なみ}の色^{いろ}哉^{かな}/저, 섬-로, 샹々봉에, 션, 솔납에석양스그늘이써러지고, 은하에저무는, 물스결빛 도커니”는 안개가 정취를 더하는 한가로운 봄날 저녁의 풍광을 노래한 것이다.

12) 財務省印刷局, 『官報』 6164, 1904.1.21, 3쪽.

13) “松は季節を超越する木として護符的な機能もつ(中略) 神が降臨する場である「依代」でもあった”, 並松信久, 『日本文化の自然観に関する試論: その系譜と共生思想』, 『京都産業大学日本文化研究所紀要』 26, 2021, 333쪽.

상술한 바와 같이 「花/꽃」을 비롯한 네 수의 와카는 인용 방식이나 주제 면에서 『일선잡가』에 수록된 다른 와카와 뚜렷이 구별된다. 『일선잡가』의 편자 현공림은 먼저,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花/꽃」을 통해 일본 정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다음에 배치한 우타를 통해 일본 민족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그 아름다움이란, 「岩上松」에서는 치세가 영원할 것을 축원하는 마음이며, 「新年ノ山」에서는 출정한 남편을 염려하는 아낙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민초들의 마음이자 곧 천황의 마음 ‘御心’인 것이다. 가어회시는 국민과 천황이 와카를 매개로 하여 이어질 수 있게 기획된 장이었다.¹⁴⁾ 「海上ノ霞」에서는 일본의 봄 경치를 칭송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본을 찬양하는 노래로 볼 수 있다. 일본 정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려는 편자의 의도는 이 네 수의 와카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자의 의도는 와카뿐만 아니라 기타 잡문에서도 드러난다. 『일선잡가』에는 「一口話し/역금」이라는 글이 있다. ‘一口話’라는 것은 짧은 소화(笑話)를 지칭한다. 이 글도 재담의 일종이다. “声の出る葉にはなめくじらを服むと宜いと云ふが腹に中ると悪いから/소리가나는약에는, 껍질업는달팽이를되려마시면좃타지문, 빅스탈이나면안되니까”(92)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지구리를싱키고” → “지구리가정근히면쑥의고기를먹고” → “쑥이너리지안컨산양스군을잡어먹고” → “산양스군이안삭진, 리장을먹고” → “리장이남스진, 귀신을잡어먹되”와 같이 유사한 패턴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반복담(反復譚)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야기의 결말은 “煎豆ヲ食ひながら下の様な歌を歌つた/복근콩을먹으며이하와긋튼노리를읊곤했겠다”라며 아래에 인용한 우타로 이어진다.

きみ 代は	ち 千歳に	や ち 八千代に	いし
君が代は	千歳に	八千代に	さざれ石の
임의티을난	천티	팔천티에	책돌이
		焦(苔)	蒸(生)豆
いはほどなりて	こけのむすまめ(まで)		
바위처럼되야	거슬니도록찌는콩		
	잇기가나기(짜지) (93)		

위 우타는 ‘기미가요(君が代)’ 제5구의 끝 글자 ‘まづ’를 ‘まゑ’로 한 글자 바꾼 것이다. 『일선잡가』에는 조선어문에 먼저 “거슬니도록찌는콩”이라고 패러디한 번역을 제시하고 다음 줄에 “잇기가나기(짜지)”라는 원 우타에 가까운 번역을 실었다. 기미가요의 원가(元歌)는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卷七 ‘賀歌’의 권두가이다. 『일선잡가』에 수록된 우타는 전국시대의 무장이자 가인이기도 했던 호소카와 유사이(細川幽斎)가 기미

14) 이에 관한 논의는 松澤俊二, 「明治期日本の和歌と<政治>: 高崎正風を中心にして」, 『桃山学院大学社会学論集』 45: 2, 2012, 52~57쪽 참조.

가요의 원가(元歌)를 패러디한 교카(狂歌)이다.¹⁵⁾ 기미가요가, “소중한 사람의 수명이 장구(長久)”하기를 염원하며 “조약돌이 이끼가 낀 거암(巨巖)이 되는 신화적이라고 할 만한 시간에 빗대어 노래”한 것이라고 한다면,¹⁶⁾ 기미가요와 「一口話し/역금」의 무한하게 반복될 것 같은 ‘반복담’은 영속적인 시간을 상기시킨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미가요가 1880년대 이후, 일본의 실질적인 국가(國歌)의 역할을 했으며¹⁷⁾ 주군의 장수를 축원하는 노래라는 점이다. 결국, 『일선잡가』에 「一口話し/역금」을 실은 편자의 의도 역시 「花/꽃」 등 일련의 와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니와부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浪花節/랑화곡도타령」 역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나니와부시는 일본에서 에도 말기에 시작된 구연 예술의 장르명인데, 현재는 ‘로쿄쿠(浪曲)’가 정식 명칭이다.¹⁸⁾ 곡사(曲師)로 불리는 샤미센 연주자가 반주하고 낭곡사(浪曲師)가 소리를 한다. 후시(節)라고 하는 노래하는 부분과 단카(嘆々)라고 하는 사설을 교대로 반복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일선잡가』에 실린 나니와부시는 「浪花節/랑화곡도타령」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작품의 원작이 일본의 낭곡사 교야마 와카마루(京山若丸)가 지은 「소집령(召集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¹⁹⁾ 「소집령」은 교야마 와카마루의 대표작 중 하나다.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분키치 일가의 비극을 그렸다. 고리대금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병든 아내와 어린아이를 건사해야 하는 고달픈 가장 분키치에게 어느 날 소집영장이 날아오고, 아내 시즈는 남편이 마음 편히 출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분키치는 인정스러운 마을 순사와 개심한 고리대금업자의 도움으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출정을 축하하는 마을 사람들의 만세 소리 속에 아내의 위패를 보며 눈물짓는다는 내용이다. 원작 「소집령」과 「浪花節/랑화곡도타령」을 비교하면 대체로 원문에 충실하게 한일병기체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으나, 번역 과정에서 미묘하게 내용이 변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주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마쓰오카 고조(松岡幸造)’에서 ‘하야시 분키치(林文吉, 조선어문에서는 림문길)’로, ‘오타네(お種)’에서 ‘오시즈(お静, 정희)’로 바뀌었다. 이는 이중언어 문맥으로 번역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선어문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작의 내용이 「浪花節/랑화곡도타령」에서 삭제된 에도 있다.

15) 『醒睡笑』(卷之八)에는 유사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마주 앉아서 붉은 콩에 파래를 무친 과자를 앞에 두고 이 과자를 소재로 기미가요의 패러디 우타를 읊는 일화가 실려 있다. 「一口話し/역금」의 “복근콩을먹으며이하와갓튼노리를윤퍼졌다”라는 부분은 유사이의 일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 鈴木宏子, 앞의 책, 24~25쪽.

17) 기미가요를 일본의 국가로 규정한 것은 1999년에 국기국가법(國旗國歌法)이 시행된 이후이다.

18) 나니와부시의 별칭인 ‘로쿄쿠(浪曲)’는 1910년대부터 일부 낭곡사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으며 업계의 정식 명칭이 된 것은 1938년 이후이다. 真鍋昌賢, 『流動する語り芸: 演者と聴衆の近代』, せりか書房, 2017, 11쪽.

19) 본 논문에서 「소집령」의 본문은 桑野桃華 編, 『京山若丸京山恭為浪花節十八番』, 東京: 三芳屋書店, 1913.을 인용하였고 인용문에 해당 쪽수를 명시하였다.

ア一今度の戰に就けては、我々も難儀だが、随分辛い人も往かれるであらう、思へば、
天皇陛下の御宸襟……」男「エーツ、生意氣な事を云ふな(6~7) (『소집령』)

ア、此度ノ戦争ニ就イテハ 我々モ難儀ダガ 随分ツライ人モ往カレルデアラウ 思へば、
어허이번 전쟁으로말하면 우리들두고싱이지만 썩난처흔사람도가게될것이로군 싱각히니
「オイオイ生氣ナ事ヲ吐フナ

이이へ주제넘은소리를그만히여 (115) (『浪花節/랑화곡도타령』)

위 인용문은 주인공 분키치(임문길)가 빗 독촉을 하는 고리대금업자와 나누는 대화이다. 「소집령」의 “천 황폐하의 마음……”²⁰⁾이라고 일본 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浪花節/랑화곡도타령」에서는 삭제되었다. 아울러 「소집령」에서 “생각하면 한심한 싸움박질 나라에 태어났다”²¹⁾(7~8)이라고 일본을 호전적인 나라 로 묘사한 부분도 삭제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대전하고 있는 전황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바뀌었다.

今度の露西亞を對手の戰にや、氣の毒だが、一人も生きて還る者は無エ、彼れ丈け到る處の港や停車場
場で皆萬歳萬歳で送られて居る兵士が、アリヤ皆死で戻るンだ、考へても見る國の広さが世界の七分の一
で、人間の數が一億七千萬だ、今度の戰にや貴様も行くだらう(8)(『소집령』)

今度ノ露西亞ヲ對手ノ戦争ニヤ、氣ノ毒ダカ、アレ丈ケ到ル所ノ港ヤ停車場デ皆ナ萬歳萬歳デ送ラレ
テキルガ、アリヤ死ンデ戻ルモノモ澤山出來ルンダ 今後ノ戰ニヤ貴様モ行クンダラウ(116) (『浪花節/
랑화곡도타령』)

「소집령」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일본군 병사는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올 자가 없다, 모두 죽어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을 반복하여 서술함으로써 승산이 없는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 러시아가 영토와 인구 면에서 일본보다 우세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원작의 내용이 「浪花節/랑화곡도타령」에서는 전사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되고 러시아의 영토와 인구 운운 하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원작이 지닌 체제에 대한 비판적 색채가 『일선잡가』에서는 상당히 열어젖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의 굴절은 『일선잡가』에 선별되어 실린 다른 글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 「소집령」의 해당 원문은 “天皇陛下の御宸襟……”.

21) 「소집령」의 해당 원문은 “思や情け無エ喧嘩國へ生まれて來た”.

Ⅲ. 마무리

근대 이후 조선에서는 잡가의 흥행에 주목하여 극장에서 공연되던 노래들을 잡가집으로 엮어 출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²²⁾ 1910~20년대에 걸쳐 잡가집이 대량으로 간행되는데, 현공림의 『일선잡가』도 이러한 당시 국내의 출판계 및 문화계의 흐름 속에서 기획 간행된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일선잡가』와 당시 국내에서 발행된 여타 잡가집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책이 일본의 전통 시가인 와카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일선잡가』의 비교문화사적 가치는 무시하기 어렵다. 『일선잡가』에는 일본의 와카 등 시가뿐만 아니라 산문 재담 역시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잡가’라는 표제에 걸맞게 와카, 교카 등의 운문과 대중적인 연행물인 나니와부시, 라쿠고가 고루 수록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돈치바나시도 여러 편 실려 있다. 『일선잡가』의 구성법은 기본적으로는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교카집(狂歌集), 속가집의 구성법을 참고한 것이다. 이러한 『일선잡가』의 구성 방식의 가장 큰 목적과 효용성은 대중성을 높이는 일에 있었다.

『일선잡가』에 라쿠고와 나니와부시를 수록한 것 또한 흥행성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본래 연행물인 라쿠고와 나니와부시는 공연이 인기를 끌게 되면 속기본이나 대본을 책의 형태로 제작 출판하게 된다. 출판된 라쿠고와 나니와부시는 독서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공연의 흥행을 촉진하는 상승 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조선에서도 라쿠고와 나니와부시의 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인기 있는 라쿠고가(落語家)와 낭곡사가 순회공연을 한다는 기사나 공연 안내 광고를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²³⁾ 『일선잡가』에 라쿠고와 나니와부시가 실린 것은 책의 편자 현공림이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를 민감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²⁴⁾

『일선잡가』는 수록된 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표기 양상을 보여주는데, 본문 서두의 와카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일본어와 조선어를 병기한 이중언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일선잡가』의 조선어 번역문 표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직역’과 ‘의역’으로 나눈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저자가 하나의 일본어문을 이와 같이 ‘직역’과 ‘의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것은 여기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사례이다. 그런 점에서 『일선잡가』는 근대 초기 번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공림은 자신이 1910년대에 출간한 『일어통편』과 같은 일본어 학습용 일선어 저작에서는 어절 단위로 일본어문과 조선어문이 대응이 되게 배열하여 두 언어를 비교해가며 읽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하면 『일선잡가』의 이중언어 표기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두 책의 성격이 서로 다른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성격 차이가 표기 방식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22) 박지애,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향유방식과 변모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9~23쪽 참조.

23) “お待兼の浪界巨頭 京山若丸 愈廿一日より浪花館(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코쿠 계의 거두 교야마 와카마루 드디어 21일부터 낭화관)”, 『조선신문』, 1924년 3월 21일 자, 6쪽.

24) 나니와부시는 조선에도 들어와 전문 상연관 낭화관(浪花館, 나니와칸)이 있을 정도로 성행하였으며 일본의 인기 낭곡사들이 조선에 와서 공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지선, 「1900년대~1910년대 경성 소재 일본인 극장의 일본 전통예술 공연 양상: 『경성신보』와 『경성일보』의 1907년~1915년 기사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31, 2015, 151~175쪽 참조.

『일선잡가』에 실린 와카의 공통성은 봄과 여름 등 계절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소재의 공통성보다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 작품의 내용이 이른바 일본의 정신을 표현하거나 천황의 치세를 칭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와카뿐만 아니라 기타 잡가 및 나니와부시 등 여타 장르의 작품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공림은 일본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 작품의 내용을 미묘하게 변화시키기도 했다. 번역 과정에서 원작에 포함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견해를 삭제하기도 한 것이다.

『일선잡가』는 식민지 시기 문화의 번역과 전이 현상 및 그에 따른 저술가의 방법론적 고민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일선잡가』의 구성 방식은 일본의 와카 등 시가와 나니와부시 등의 산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대중성을 획득해 갔는가를 잘 보여준다. 『일선잡가』의 다양한 표기 형태는 이중언어 표기 방식이 시대적 흐름 및 독자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직역과 의역의 거듭된 시도는 근대 초기를 대표하는 번역가의 한 사람인 현공림의 고민을 드러낸 주목할 만한 결과물이다. 『일선잡가』는 현공림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흥미로운 자료이다. 점차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해져 가는 현공림의 태도에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 일찍이 한일간의 문화 비교와 이중언어 표기에 관심을 가졌던 그의 생각과 저작물들이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출판 환경의 변화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원고와 출판물에 대한 검열 강화는 그러한 환경 변화의 중대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근대 초기 이중언어 저작물에 관한 연구와 체계적 정리는 우리 학계가 감당해야 할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일선잡가』에 대한 이 연구를 계기로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공림의 다른 이중언어 저작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여타 근대 초기 저술가들의 일선어 저작에 관한 연구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정재호 편저, 『한국속가전집』(전 6권), 도서출판 다운샘, 2002.
- 현공림, 『日鮮語新小説 東閣寒梅』, 文明社(인쇄), 1911.
- 현공림, 『日鮮語新小説 竹西樓』, 日韓印刷株式會社(인쇄), 1911.
- 현공림, 『精選日語通編全』, 書籍及帽子製造所(日韓印刷株式會社 인쇄), 1911.
- 현공림, 『日鮮滑稽話』, 대창서원/보급서원, 1915.
- 현공림 편저, 『日鮮雜歌 附才談』, 대창서원, 1924.
- 国民文庫刊行会 編, 『狂歌狂文集』, 国民文庫刊行会, 1912.
- 夢廼家主人, 『戲芸一大奇書: 戦争詠込』, 早川熊治郎, 1895.
- 桑野桃華 編 『京山若丸京山恭為浪花節十八番』, 三芳屋書店, 1913.
- 小島憲之 校注, 『古今和歌集』(新日本古典文学大系 5), 岩波書店, 2017.
- 松の家みさを, 『日清滑稽流行歌大博覧会』, 石橋南門堂, 1895.
- 田中裕 校注, 『新古今和歌集』, 岩波書店, 1992.
- 財務省印刷局, 『官報』 6164号, 1904.1.21., 6465号, 1905.1.20.
- 노혜경, 『『일신골계화(日鮮滑稽話)』 연구원전의 발굴 소개와 변용(變容)의 의미 탐구』, 『동양학』 6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 박상현, 「한국에서의 와카 번역사 연구: 자국화와 타국화의 사이」, 『일본문화연구』 57, 2016.
- 박지애, 「20세기 전반기 잡가의 향유방식과 변모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지선, 「1900년대~1910년대 경성 소재 일본인 극장의 일본 전통예술 공연 양상: 『경성신보』와 『경성일보』의 1907년~1915년 기사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31, 2015.
- 並松信久, 「日本文化の自然観に関する試論: その系譜と共生思想」, 『京都産業大学日本文化研究所紀要』 26, 2021.
- 松澤俊二, 「明治期日本の和歌と<政治>: 高崎正風を中心にして」, 『桃山学院大学社会学論集』 45: 2, 2012.
- 真鍋昌賢, 『浪花節 流動する語り芸—演者と聴衆の近代』, せりか書房, 2017.
- 鈴木宏子, 『「古今和歌集」の創造力』, NHK出版, 2018.
- 海野圭介, 「和歌の詠まれる場とたち」, 『タイ国 日本研究国際シンポジウム2007報告書』, 2007.8.2.
- 日本たばこ産業株式会社, 「専売制の背景」, <https://www.tabashio.jp/collection/tobacco/t21/index.html>

* 이 논문은 2022년 5월 30일에 투고되어,
2022년 6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7월 7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7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Hyeon Gongryeom's 『Ilseon Japga(日鮮雜歌)』

- Cultural Translation and Transition -

Noh, Heykyoung*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yun Gongryeom's writing 『Ilseon Japga(日鮮雜歌)』. Various works such as poetry and prose tales, such as Japanese waka, are included in 『Ilseon Japga』. The composition method of 『Ilseon Japga』 refers to the composition method of the japga collection published in Japan at that time. The biggest purpose of the composition method of 『Ilseon Japga』 is to increase its popularity. Except for the explanation of Waka in the beginning, most of the 『Ilseon Japga』 uses bilingual notation consisting of Japanese and Korean. 『Ilseon Japga』 presents two examples of Korean translation divided into 'literal translation' and 'paraphrase'. It is the first attempt in this book to divide a single Japanese sentence into a 'literal translation' and a 'paraphrase'. The bilingual notation of 『Ilseon Japga』 is different from the cases he tried in the past. This shows that the writing style is changing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times and the type and level of readers. The commonality of the contents of Waka published in 『Ilseon Japga』 is that it is based on seasons such as spring and summer. The contents of these works express the spirit of Japan or praise the reign of the Emperor. These contents can be found not only in Waka but also in other genres such as such as other miscellaneous songs. 『Ilseon Japga』 shows the translation and transition of colonial culture. And it shows the writer's methodological anguish related to it.

[Keywords] Hyeon Gong-ryeom, Ilseon Japga(日鮮雜歌), bilingual notation, translation, waka, naniwabushi, rakugo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